



# 여성 없는 여성 시학에 반(反)하여

## : 『여성 시학, 1980~1990』을 읽고

성현아

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1 말할 수 없는 페미니즘

지난달 16일, 〈2022년 대선, 청년의 선택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다. 이삼십 대 여성 표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의당 의원인 장혜영은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인 김병민에게 질문을 던진다.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간명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답을 회피하고서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아래에 부분적으로나마 그 대화를 옮겨본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페미니즘은 필요하지만, 극단적 페미니즘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병민(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많은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해드렸다는 점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요. 그동안 지난날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문제 속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처벌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점에 합당한 처벌인지 등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시급하게 떠올랐던 적들이 있죠. 관련된 성적 문제에서…….

사회자 자,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병민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혜영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제 질문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인께서는 페미니즘은 필요하지만, 극단적 페미니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봤어요.

김병민 여성 인권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여성 인권의 신장

을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혜영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두려워하시는군요.

김병민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간 여성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고 언급하면서 나타났던 이에 대한 또 다른 반대급부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언급도 함께 드린 겁니다.

사회자 자, 자, 페미니즘이 볼드모트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일동 웃음)

이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볼드모트와 같이 이름 부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하다. 문학장 안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혹은 이해도의 차이는 있어도 여성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페미니즘을 주창해야 한다는 데에 표면적으로나마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페미니즘이 더러운 말”<sup>1</sup>이 되었고, 심지어는 그 말 자체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데 쓰이는 일종의 낙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대변인까지도 그러한 쓰임을 의식하며 ‘페미니즘은 필요하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선뜻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비단 이 단어를 오용하고 왜곡하려는 몇몇 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는 메시지 그 자체를 오염시키는 전략은 한국 사회에서만큼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여성주의 혹은 여성 차별을 언급할 때면 언제나,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기 검열과 증명을 먼저 거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연정이 지적하고 있듯 “나는 페미니

---

1 심진경,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제28권 제3호, 문학동네, 2021, 117쪽.

스트는 아니지만(7)”<sup>2</sup>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편이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말하는 일보다 덜 어렵게 되었다. 전자의 단서를 붙여야지만, 불필요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관용구에 가까워진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지만’이라는 서두는 올바른 페미니즘에 대한 강박(물론 이 강박 또한 요구된 것이겠지만)에서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이들이 먼저 공부의 불충분함 혹은 잘못된 페미니즘이 불러올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며 그러한 말을 덧붙이게 된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이 목표로 하는 차별 철폐에 반대하는 이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요구해야 한다는 명분을 들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켰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조연정은 “나는 지금 페미니스트가 되어 가는 중(7)”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가 부연했는지 심분 이해하면서도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밀고 나가는 일보다 그것이 옳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일을 먼저 하게 만든 사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어떠한 일이든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여성들이 그 과정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된 것은 분명 문제적이다. 조연정은 페미니즘에 관한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갱신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며 자신의 논의를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위시한 여성 연구자들이 지니게 되는 ‘조심성’에 대해 재고한다. “레디칼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6)”는 고정희의 문장을 경유하여 조심성으로 인해 더 힘을 얻지 못한 주장들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억압이 되어 우리를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본다. 그리하여 그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게 되기 위해 이 책을 서술한다고 밝힌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도 자신의 논지를 잃지 않는 저자를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여성 시학, 1980~1990』을 읽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어도 될 듯하다.

---

2 조연정, 『여성 시학, 1980~1990』, 문학과지성사, 2021. 이하 이 책의 인용은 괄호 안 쪽수로 표기.

## 2 문학과 현실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일

페미니즘 이론이나 문학장에서의 화두가 아닌 여성이 처한 현실에서 글을 시작한다는 점 또한 이 책이 가진 미덕이다. 조연정은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젠더 불평등한 현실을 외면해왔던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해 재성찰하고자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여러 여성 시인에 주목하며 그들의 개별시편을 세세히 살피기도 하지만, 그 작업을 엮어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틀은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문학이란 무엇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문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길어 올리는 그물이다. 조연정은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문학사를 살피거나 문학적 요소들을 재점검하는 일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과 문학적 실천의 접점을 찾고 그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그가 이전부터 진행해왔던 작업이다. 조연정은 문학의 미학성과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숭한 논쟁 속에서 문학 텍스트 내부의 미학적·정치성보다 현실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우선시해왔다. 이는 “페미니즘 자체가 운동으로부터 촉발된 이론(223)”이라는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전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페미니즘 이슈들을 매개로 문학과 삶이 적극적으로 교섭”<sup>3</sup>하는 현상을 두고 타자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문학의 몫이 아니라며 과도하게 조롱하고 비판하는 논자들에게 조연정은 “실천의 결여나 공감의 결여를 은폐”<sup>4</sup>할 목적으로 ‘문학의 자율성’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책임 의식과 이를 “문학의 새로운 지분으로 요청”<sup>5</sup>할 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거리 두기의 실패나 공감의 과잉으로 치부하는 일을 경계한다. “문학의 위축을 염려하는 일”보다 참혹한 현실에 분노하고, 소수자들의 “부당한

3 조연정,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2018 한국문학의 여성서사가 놓인 자리」, 『문학은 위협하다』, 소영현 외 공저, 민음사, 2019, 400쪽.

4 위의 글, 403쪽.

5 위의 글, 404쪽.

삶의 조건을 고발”<sup>6</sup>하는 일이 더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1980~1990년대 여성 시인들을 다루고 있지만, 2020년대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이자 다가올 미래를 여는 하나의 열쇠로 읽힌다. 강남역 살인 사건, #문단\_내\_성폭력 말하기 운동과 N번방 사건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젠더 폭력의 현주소를 직시하게 된, “‘여성성의 미학’보다는 ‘여성의 현실’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적 요청이 강력(150)”해지는 지금, 조연정이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과 문학의 단절’은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학장 내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첨단의 페미니즘 이론만을 탁상공론하는 동안 여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여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할 구실을 계속해서 제공해왔으므로, 그러한 명분과 핑계의 생성을 차단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문학장 안에서 이야기되는 페미니즘과 ‘페미’라는 멸칭으로까지 전락해버린 현실 페미니즘과의 괴리를 상기해보면, 이 책이 제안하는 방향이 정서적으로는 위안이, 난관에 봉착한 문학에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기 그지없다.

한국 문학사 전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조연정은 이러한 작업이 한국 문학사를 지탱해온 텍스트 해석 원리나 제도적 조건 등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준거를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설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며 긍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과와 별개로 “여성주의 시각의 문학사(22)”가 메타비평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사가 주목했던 남성 작가들의 텍스트를 거듭 해석하게 되어 역으로 그 중요도가 강조되는 아이러니를 문제시한다. 조연정은 정전으로 굳어진 작품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일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남성중심의 문단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가와 비평가의 작업을 발견해내는 일 또한 그만큼 중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성 작가/시인/비평가/독자의 문학

---

6 조연정, 「문학의 미래보다 현실의 우리를」, 『문장웹진』 2017년 8월호.

적 활동을 토대로 한 새로운 문학사(28)”를 구축하는 일 또한 여성문학 연구자들이 수행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조연정은 시대적 한계 혹은 남성중심의 협소한 비평적 인식 틀로 인해 발견되지 못했던 새로운 지점들을 과거 여성들의 문학 활동에서 읽어내고자 시도한다. 이를 통해 밝혀낸 여성 문인들의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화될 수 있을지 또한 치열하게 고민한다.

### 3 ‘여성’이 축소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문학과 현실을 매개하며 여성문학의 정치성을 살피는 연구가 1980~1990년대의 여성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저자의 죽음’, 타자성으로서의 여성성이 대두되며 그러한 연구가 젠더의 대립을 더욱 부추긴다는 이유로 한동안 지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연정이 이 책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최초’라고 칭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러한 작업이 여러 여성 시인들을 두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조연정은 여성시가 여성의 삶, 현실, 실존을 반영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여성시를 해석하며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다. 바로 과잉여성화와 과소여성화이다. 과잉여성화란 “여성의 글쓰기에서 모든 것은 젠더로 설명할 수 있다”<sup>7</sup>는 잘못된 믿음을 뜻한다. 반대로 과소여성화는 여성성을 타자성이라는 더 큰 범주로 확장하거나 해체주의 담론과 결합하는 과정 등에서 여성이라는 표지가 사라지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 과잉여성화는 작품이 가진 개별적인 미학성을 축소하므로 문제적이지만, 과소여성화의 경우 텍스트에 드러나는 ‘여성’을 삭제해버림으로써 “여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고유한 문제 제기를 괄호(99)”치게 하므로 더욱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조연정의 설명이다. 과소여성화는 여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지 않은 안티페미니즘에 가까운 욕망에서 비롯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지체(遲滯)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페미니즘을 표방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탓에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간접적

7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148쪽.



인 방식으로만 실천된다. 따라서 1990년대의 한국 문단에서는 여성문학을 불가피하게 주류 문단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문학성’이라는 주관적 잣대와 1990년대라는 시대적 특성, 그리고 포스트페미니즘의 추상적 담론들을 주로 활용하였다. 여성주의라는 좁은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으로 상찬되면서 여성문학의 ‘여성’이 지워지기도 했으며, 정치와 일상, 집단과 개인, 역사와 내면 등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1980년대와 달라진 1990년대적 상황을 의미화하기 위해서만 혹은 ‘여성적 글쓰기’라는 타자성의 ‘담론’으로 분석해내는 한에서만, 여성문학은 주류 문단에 수용될 수 있게 된다.(220)

이와 같은 조연정의 진단은 예리하고 적절해 보인다. 여성주의에 국한되지 않는 진전된 방식으로 여성문학을 살피자는 제안은 그 표면적인 의도가 무색하게 ‘여성’을 무한히 확장하며 오히려 텅 빈 기표로 만들어버리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페미니즘 이론에 관한 열띤 논의가 아쉽게도 여성의 현실과는 다소 무관한 자리에서 공회전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여전히 억압적인 여성 현실과 오히려 퇴행하는 듯한 현재의 페미니즘을 상기한다면, 과잉여성화보다 과소여성화를 경계하며, 과소여성화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현실을 과잉여성화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환기할 필요가 있겠다.

여성 시인들의 시에 기입되어 있는 ‘여성’을 소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읽어 내기 위해서 조연정은 “시적 화자와 시인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 전략(52)”을 취한다. 여성 시인이 처했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그들의 고유한 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법은 과잉여성화로 경도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읽기를 배제해왔던 흐름이 텍스트 해석의 다양성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현실에 접속하려는 여성주의적 시도를 축소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연정이 분석 틀로 삼고자 하는 ‘저자의 여성적 정체성’에 수궁하게 된다.

#### 4 삶을 바꾸는 여성시와 여성 시학

조연정은 저자의 성별과 생애를 적극 참조하겠다고 전제한 이후 김혜순, 고정희,

최승자, 허수경의 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하여 여성성이 소거된 채 무성적 방식으로 읽히거나 ‘여성’시로만 부각된 측면이 있는 이들의 시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에 구현하고자 했던 여성의 삶, 현실, 실존에 집중한다. 그는 김혜순의 시가 ‘먹는 남성-먹히는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젠더 불균형의 구도를 단순히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이는 주체(57)”로서의 여성을 조명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혜순은 시 속에서 무임금 가사 노동에 착취당하며 평생 누군가를 먹여야 하는 여성의 삶과 그로 인한 고통의 정념을 재현한다. 이것은 시대의 폭력이자 국가의 폭력을 고발하는 비유로 해석되어 왔지만, 그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젠더 폭력의 양상을 적극적으로 읽어낼 때 김혜순 시의 의의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더불어 당시 비평이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혜순의 시가 발설하고 있는 사회적 질곡 역시 적절히 평가해주지 못했다는 점 또한 온당하게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고정희의 시 또한 여성해방문학으로 읽어내고자 한다. 조연정은 고정희의 행보를 상세히 추적하여 그가 여성주의 운동의 원칙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분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고정희가 여성해방운동에 투신했다는 점에만 방점을 찍게 될 경우,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의 여성주의 문화 실천과 고정희의 문학적 실천이 동일시되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경유하여 시가 “여성해방의식을 공론화하는 장(121)”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고정희의 시적 전략을 분석해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고정희가 여성문학사를 섭렵하여 여성주의자로서 인식을 다져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그의 시 텍스트가 여성주의적 실천에 다름 아니었음을 밝히는 조연정의 작업을 따라 읽으면, 작가의 성별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기보다 오히려 이제까지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인지하게 된다. 남성 시인 연구의 경우, 시와 관련이 적은 에피소드, 시인의 지인과 연인, 심지어는 일기장의 낙서까지 모두 시 해석에 참조할 만한 단서로 거론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운동 실천가로서의 고정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연구되고 더 자주 시 텍스트와 연결 지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연정의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연구자, 작가, 비평가가 호응하여 함께 수행하

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조연정이 상정한 저자성은 최승자의 시를 분석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최승자가 독신의 삶을 살았으므로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어머니나 가정주부의 역할을 수행한 적 없고, 시인 겸 번역가로 활동했으므로 ‘여성-민중’ 혹은 ‘여성-노동자’와도 거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제도권에 안착한 적 없기 때문에 문필가임에도 ‘여성-지식인’으로 분류되기도 어렵다고 본다. 최승자가 자리하는 독특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그의 시에 나타나는 여성 주체가 ‘여성-지식인’, ‘여성-민중’, ‘여성-노동자’ 중 그 어느 쪽으로도 포괄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철저히 “탈관념화, 탈대상화(172)”될 필요가 있다. 맞지 않는 해석 틀을 걷어낼 때 비로소 최승자의 시를 여성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강력하게 환기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텍스트로 살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저자의 젠더를 텍스트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으로만 작품을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젠더와 더불어 계급, 민족, 가족 구성, 직업 등의 다양한 요소를 교차시켜 텍스트의 고유한 미학적 또한 밝혀보는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또한 조연정은 최승자가 ‘가정 밖의 여성’이라는 점을 참조하여 그의 시 전반에 빈번하게 묘사되는 낙태의 이미지를 ‘불모의 여성성/시대성’의 상징으로 환원시켜 버릴 것이 아니라 “일체의 관계를 버리고 완벽한 독자적 실존을 추구하는 여성의 또 다른 삶의 태도(188)”를 환기하는 장치로 적절히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배고픔’이라는 감각 또한 비유로 해석하기보다 실제적 감각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현실적 삶의 조건(188)”과 결부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조연정은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한국 문단의 보편적 문제로 확장하지 못했다는 점과 문학 내부의 실천이 문학 외부의 현실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1990년대 여성문학 담론의 한계로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고 1990년대 여성 시를 확장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여성적 서정시로 읽혀온 허수경의 시를 “여성주의적 서정시(230)”로 독해하려 한다. 그는 “‘여성성=모성성’의 부당한 동일시를 경유(232)”하여 허수경의 시를 위대한 모성성의 시로 해석하는 기존의 논의가 여성의 희생을 신비화하고 여성의 고통을 무화시킨다며 비판한다. 허수경의 시가 여성/남성의 대립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성의 발현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조연정은 이러한 시적 경향을 통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성, 남성성을 다루어 기존의 젠더 규범을 해체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조연정은 허수경이 아버지-딸을 독특한 구도로 형상화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그가 기존의 장소성을 역전시켜 아버지-남성은 집 안의 가족관계 속에, 딸-여성은 공적 존재로 가정 밖에 위치시킨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는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 집 밖의 남성과 집 안의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반복하지 않는 방식(240)”이므로 혐오를 통해 세계의 혐오를 드러내 보이는 글쓰기보다 좀 더 발전된 방식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 따라서 허수경의 시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모성성의 실천에 있다기보다 “모성의 수행자를 여성으로 고정하지 않(241)”음으로써 모성이 가진 희생과 같은 선입견의 외피를 벗겨냈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잉여성화와 과소여성화 모두를 경계하며 여성 시인들의 시를 살필 때, 이들의 시가 여성이 처한 억압적 현실과 더불어 그 속에서 여성들이 감각하고, 저항하고, 감내하고, 전복적으로 상상하며,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까지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시가 여성의 현실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일은 이들의 시를 단순히 현실 반영물로 평가 절하하는 일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담아낼 언어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감행하며 새로운 시적 전략을 고안했던 여성 시인들의 면모를 온당하게 헤아려 주는 일이 된다. 더불어 이러한 연구는 과소여성화가 관행으로 굳어진 현재의 문학장에 직설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과 밀착된 페미니즘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여성 작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주목하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 받게 되는 공통적인 억압과 각자 삶의 굴곡에 따라 굴절되어 작용하는 개개의 차별을 경험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부단히 애쓴 실존 여성으로서도 조명한다. 그래서인지 대상 텍스트인 여성시가 입체적인 분석 속에서 오히려 생동성을 부여받는다. 과거의 시가 살아있는 여성들의 숨이 깃든 텍스트임을 밝혀 그것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독자의 내면에 날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시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계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시인과 독자의 상호

인정”<sup>8</sup>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동의하며, 여성시에 있어서 그러한 의지는 더 잘 지워지고 더 자주 왜곡되므로 그 빛을 꺼뜨리지 않고 서로에게 당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나 비평의 매개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이고 싶다. “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신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증명할”<sup>9</sup> 것이라는 조연정의 문장을 이 책에 돌려주어도 과장이 아닐 듯하다. 이 책 또한 책이 붙들고 있는 여성시와 함께, 사라지지 않고 남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리라 기대해본다.

---

8 조연정, 『만집의 시간』, 문학동네, 2013, 187쪽.

9 위의 책, 같은 쪽.